

##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와 희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정하\*\* · 김경민\*\*\* · 송지은\*\*\*\* · 나윤경\*\*\*\* · Tan Mei Xin\*\*\*\*

###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와 희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울, 경기 소재 5개 중·고등학교 학생 4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본심리욕구 및 희망과 학교적응 수준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이용해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에서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나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기본심리욕구 및 희망과 정적 관련성이 있었다. 셋째, 희망은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즉,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희망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학교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과의 관계를 희망이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하지만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과의 관계에서는 희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 기본심리욕구, 희망, 학교적응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제1저자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교신저자, [kyungmin414@gmail.com](mailto:kyungmin414@gmail.com)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아동학전공 석사과정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는 지적·사회적 역량을 발달시키고 소속감을 경험하게 하며 친구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가는 장이다. 이 시기의 학교적응은 청소년기에 성취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제이며,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청소년기 이후 심리사회적 발달이나 성인기로의 성공적 전환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강유진, 문재우, 2005; Nota, Soresi, Ferrari & Wehmeyer, 2011; Vieno, Santinello, Galbiati & Mirandola, 2004). 최근 들어 청소년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따돌림, 폭력, 우울증 및 자살과 같은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출되고 있어 청소년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Lazarus(1976)는 적응을 개체와 환경 간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환경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이 아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의미까지도 포함된다. 학교적응도 이러한 맥락에서 개념화할 수 있다. 송운용과 곽수란(2006)은 학교적응을 학교라는 사회적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이 그 집단의 목적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이러한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에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문은식(2002)은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심리적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외현적·내재적 행동이라고 하였다. 정리하면, 학교적응은 학업 유능감을 가지고 교사 및 친구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학교생활에서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려 노력하는 행동이다.

기존에는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나이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이경상, 2011; 좌현숙, 2012), 자아효능감(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2012; 이규미, 김명식, 2008), 부모 양육행동(강승희, 2010; 강유진, 문재우, 2005), 가족관계(김종범, 2009; 남영옥, 2010), 친구 및 교사관계(김영춘, 정민숙, 2012; 이경상, 2011), 학교생활(김아영, 2010; Erath, Flanagan & Bierman, 2008), 학업성취도(김명희, 하정희, 차경희,

2006) 등의 요인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학교적응의 개념적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적응은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이를 변화시키고자하는 행동이고,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학교적응 역시 동기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인 자기주도학습(이희선, 권영애, 2012)이나 학업성취(안도희, 최혜림, 2012)의 동기에 대한 연구들은 수행되었으나, 학교적응에 대한 동기 관련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기적 접근으로 학교적응을 연구하는 것은 학교적응 행동의 개인 내적 기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동기 분야 연구에서 각광받고 있는 자기결정성 이론(Deci & Ryan, 2000)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발휘되어 더 잘 적응한다. 자기결정성 이론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환경에 초점을 두었다(전성희, 신미, 유미숙, 2011). 반면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어 나타나는 내적 동기에 중점을 둔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내적 동기는 개인의 사고나 신념, 태도와 같이 개인 내부로부터 오는 동기이다(Ryan & Deci, 2000). 이는 행동의 원인이 보상이나 칭찬 등 외적 요인으로부터 나오는 외적 동기와 구분된다. 내적으로 동기화된 사람들은 내적 과정을 통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Deci & Ryan, 1985),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Areepattamannil, Freeman & Klinger, 2011).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내적으로 동기화된 활동이 외적으로 동기화된 활동보다 수행 결과 만족도가 높다(안성희, 2003). 또한 한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행동주체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Deci & Ryan, 2002), 적응 연구에 있어 내적 동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토대로 기본심리욕구와 내적 동기로서 희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특히 희망이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기본심리욕구란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으로, 획득되기보다는 타고나는 필수 조건이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성된다(Deci & Ryan, 1985, 2000). 자율성 욕구는 자기 행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자신이 행동에 대한 주체이고 조절자라고 느낄 때 충족된다. 유능성 욕구는 개인이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사용할 기회들을 경험할 때 충족된다. 그리고 관계성

욕구는 다른 사람과 관심을 주고받는다라는 느낌, 즉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충족된다.

기본심리욕구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긍정적인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율성 욕구의 충족은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쳤고(장경문, 2011; Ryzin, Gravely & Roseth, 2009), 유능성 욕구의 충족은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증가시켰고(Deci & Ryan, 1991), 삶의 의미 발견과 관련이 있었다(정은이, 2011). 관계성 욕구의 충족은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한소영, 신희천, 2009) 및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 높은 관련이 있었다(박병선, 배성우, 2012). 또한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심리적 적응(Baard, Deci & Ryan, 2004), 삶의 만족(Leveresen, Danielsen, Birkeland & Samdal, 2012), 안녕감(Vansteenkiste, Ryan & Deci, 2009)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는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기 적응행동과 관련된 내적 동기로 희망이 있다. 희망 개념에 대해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yder(2000)의 희망 이론에서는 희망의 인지적이고 동기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정의하고 있다. Snyder(2000)에 따르면 희망은 주도적 사고와 통로 사고로 구성되는데, 주도적 사고는 목표를 추구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진하도록 하는 정신적인 에너지이고, 통로 사고는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음속의 계획이나 방법이다. 즉, 희망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이고, 목표를 향해 움직이려는 인지적인 의지력이다(Snyder, LaPointe, Crowson & Early, 1998). 희망의 정의에서처럼 희망은 인지적 특성을 지닌 내적 동기이다. 따라서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말하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어 나타나는 내적 동기는 적응적 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경로에서 내적 동기로서 희망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 이를 통해 인지적 의미에서의 동기도 자기결정성 이론에 적합한지 탐색해 볼 수 있고 자기결정성 이론을 재검증하며 학습관련 내적 동기에 집중되었던 이론을 확장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희망은 특히 중요하다. 진로, 학업, 대인관계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에게 희망은 목표 달성을 위한 긍정적 신념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힘이 된다(김미숙, 이창식, 2012; Padilla-Walker, Hardy & Christensen, 2011).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희망은 변화를 촉진시키고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등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유희, 이회경, 이동귀, 2008). 또한 희망은 높은 수행력(Curry & Snyder, 2000) 및 적응력(Snyder, 2002), 사회적 유능감과 창의성(Onwuegbuzie & Daley, 1999), 대인관계(Barnum, Snyder, Rapoff, Mani & Thompson, 1998), 스트레스 대처(Snyder et al., 1991), 삶의 만족도(Chang, 1998; Shogren, Lopez, Wehmeyer, Little & Pressgrove, 2006) 등 긍정적인 변인과 관련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희망이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희망 이론과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성장하려는 경향이 내재되어 있으며, 자발성과 목표지향적인 특성이 있다(Deci & Ryan, 2000; Snyder & Lopez, 2005). 희망 이론에서는 사람의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희망의 전제조건으로 자신이 행동의 주체라는 신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 사회적 지지 등을 강조한다(Snyder, 2000). 즉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면 희망이 더 잘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내적 동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Wandeler & Bundick, 2011). 또한 두 이론 모두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어 나타나는 내적 동기는 성취와 적응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Ryzin, 2011).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내적 동기가 생기고(백희숙, 2012; 이회란, 2013; Deci & Ryan, 1991), 내적 동기로 인한 행동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수지, 2010; Walls & Little, 2005). 두 이론과 연구결과들을 미루어 보아,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어 나타나는 희망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에서도 자율성, 유능성 혹은 관계성 욕구와 적응의 관계에서 내적 동기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학업적 적응에만 집중하거나(백희숙, 2012), 학업과 관련된 내적 동기의 효과를 검증하였고(이회란, 2013),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 중 특정 하위 욕구의 영향력만을 파악하여(장수지, 2010; Padilla-Walker et al, 2011),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말하는 인간의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와 전반적인 학교적응의 관계에 관한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통합적인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김아영, 2010; 이명희, 김아영, 2008; Weinstein

& Ryan, 2011)에서는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의 차이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지 않으므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급에 따라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처한 환경,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 및 교육과정의 다른 점을 미루어 보아 학교급에 따른 차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각각 새로운 학교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공동된 과업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이 기존에 경험한 교육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을 토대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다. 기본심리욕구와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어 나타나는 내적 동기가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와 내적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줄 수 있다. 특히 내적 동기로서 희망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 중 하나인 학교적응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업과 관련된 변인에 많이 적용되었던 자기결정성 이론을 학교적응에까지 확장한 결과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와 희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 수준에 대해 살펴본 뒤,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및 희망과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와 희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내적 동기인 희망이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이해하는데 있어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말하는 기본심리욕구와 내적 동기인 희망의 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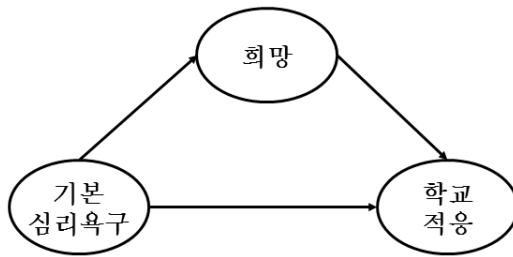


그림 1. 개념적 수준에서의 연구모형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의 일반적 경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와 희망은 학교적응과 관련있을 것이다.
- 3)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는 희망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2개 중학교와 2개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남녀 청소년 4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15.37세 (SD=1.50)였다. 이 중 남학생이 179명(39.4%), 여학생이 275명(60.6%)이었고, 중학생이 232명(51.1%), 고등학생이 222명(48.9%)이었다. 연구대상 중 자신의 성적이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101명(22.5%), 중위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244명(54.5%), 하위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103명(23%)이었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 척도, 희망 척도,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 1) 기본심리욕구

청소년이 지각한 기본심리욕구를 평가하기 위해 Baard와 동료들(2004)이 개발한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한국형으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본심리욕구 척도는 인간의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는데,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 각각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성은 자신이 행동의 주체이자 조절자라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등이 있다. 유능성은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사용할 기회를 경험한 정도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느낀다’ 등이 있다. 관계성은 타인과 관심을 주고받으며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6점까지 Likert식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가 잘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명희와 김아영(2008)은 척도 개발시 구성타당도 및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문항 전체 Cronbach  $\alpha$ 는 .87, 각 요인별 Cronbach  $\alpha$ 는 자율성 .70, 유능성 .75, 관계성 .79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전체 Cronbach  $\alpha$ 는 .89, 각 요인별 Cronbach  $\alpha$ 가 자율성 .78, 유능성 .85, 관계성 .84로 나타났다.

### 2) 희망

청소년이 지각한 희망을 평가하기 위해 Snyder와 동료들(1991)이 개발한 희망 척도를 강이영(2002)이 번안하고 김택호(2004)가 일부 수정한 뒤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희망 척도는 통로 사고, 주도적 사고 그리고 중립문항이 각각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로 사고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 가능한 방법들을 생성해

낼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지각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 등이 있다. 주도적 사고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지각 수준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나의 목표를 의욕적으로 추진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8점까지 Likert식 8점 척도로 측정된다. 중립문항은 채점에서 제외되고, 총점이 높을수록 희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택호(2004)는 척도제작 과정과 예비조사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토하고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문항 전체 Cronbach  $\alpha$ 는 .86, 각 요인별 Cronbach  $\alpha$ 는 통로 사고 .80, 주도적 사고 .77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전체 Cronbach  $\alpha$ 는 .87, 각 요인별 Cronbach  $\alpha$ 는 통로 사고 .80, 주도적 사고 .79로 나타났다.

### 3) 학교적응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이규미와 김명식(2008)이 개발한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교공부 8문항, 학교친구 10문항, 학교교사 10문항, 학교생활 10문항, 총 38문항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은 학교 수업에 잘 참여하며 학교공부의 중요성 및 의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등이 있다.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은 학교에서 교우 관계가 좋으며 친구들과 긍정적인 교류를 주고받는 정도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등이 있다. 학교교사에 대한 적응은 교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와 친밀한 교류를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우리 학교에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등이 있다.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은 학교시설을 아끼고 학교를 좋아하며 학교활동에 잘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우리학교의 특별한 행사(소풍, 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0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의 3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규미와 김명식(2008)은 척도를 개발하면서 구성타당도와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였고, 문항 전체 Cronbach  $\alpha$ 는

.93, 각 요인별 Cronbach  $\alpha$ 는 학교공부 .83, 학교친구 .87, 학교교사 .90, 학교생활 .85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전체 Cronbach  $\alpha$ 는 .93, 각 요인별 Cronbach  $\alpha$ 는 학교공부 .83, 학교친구 .87, 학교교사 .90, 학교생활 .86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연구과정 및 설문지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3년 4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60명(남 30명, 여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설문지를 서울·경기 지역의 2개 인문계 고등학교와 2개 중학교 학생 465명에게 배부하였다. 서울은 지역차를 고려하여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 임의로 학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팀이 각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뒤 교사의 협조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은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5월 20일부터 9일간 실시하였고, 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학생들이 설문지를 완성한 즉시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회수한 질문지 461(99.14%)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한 454부(97.63%)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와 희망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PSA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기본심리욕구 척도, 희망 척도, 학교적응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와 희망 및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청소년의 희망이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과 Sobel(1982) 검증을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의 일반적 경향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희망의 하위요인인 주도적 사고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교사에 대한 적응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주도적 사고(남  $M=5.60$ ,  $SD=1.26$ ; 여  $M=5.31$ ,  $SD=1.26$ )와 학교교사에 대한 적응(남  $M=2.82$ ,  $SD=.69$ ; 여  $M=2.68$ ,  $SD=.68$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중  $M=4.59$ ,  $SD=.70$ ; 고  $M=4.32$ ,  $SD=.64$ ), 희망(중  $M=5.84$ ,  $SD=1.07$ ; 고  $M=5.52$ ,  $SD=1.10$ ), 학교적응(중  $M=3.03$ ,  $SD=.46$ ; 고  $M=2.85$ ,  $SD=.43$ ) 모두 중학생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희망의 하위요인인 주도적 사고,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공부, 학교교사,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에서 중학생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

##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의 일반적 경향

|                | 변인   | 평균(표준편차)                |                         | <i>t</i> | 평균(표준편차)                |                          | <i>t</i> |
|----------------|------|-------------------------|-------------------------|----------|-------------------------|--------------------------|----------|
|                |      | 남학생<br>( <i>n</i> =179) | 여학생<br>( <i>n</i> =275) |          | 중학생<br>( <i>n</i> =232) | 고등학생<br>( <i>n</i> =222) |          |
| 기본<br>심리<br>욕구 | 자율성  | 4.43(.90)               | 4.41(.80)               | .25      | 4.61(.84)               | 4.21(.79)                | 5.29***  |
|                | 유능성  | 4.24(.91)               | 4.22(.86)               | .23      | 4.35(.89)               | 4.10(.85)                | 3.00**   |
|                | 관계성  | 4.64(.82)               | 4.78(.74)               | -1.92    | 4.81(.79)               | 4.64(.75)                | 2.29*    |
|                | 전체   | 4.44(.71)               | 4.47(.67)               | -.52     | 4.59(.70)               | 4.32(.64)                | 4.33***  |
| 희망             | 통로사고 | 5.97(1.14)              | 5.93(1.08)              | .45      | 6.01(1.15)              | 5.87(1.05)               | 1.36     |
|                | 주도사고 | 5.60(1.26)              | 5.31(1.26)              | 2.33*    | 5.67(1.17)              | 5.17(1.31)               | 4.35***  |
|                | 전체   | 5.78(1.12)              | 5.62(1.11)              | 1.58     | 5.84(1.07)              | 5.52(1.10)               | 3.20**   |
| 학 교<br>적응      | 학교공부 | 2.83(.59)               | 2.77(.59)               | 1.14     | 2.88(.56)               | 2.70(.57)                | 3.45**   |
|                | 학교친구 | 3.18(.55)               | 3.26(.53)               | -1.53    | 3.28(.55)               | 3.18(.52)                | 1.80     |
|                | 학교교사 | 2.82(.69)               | 2.68(.68)               | 2.08*    | 2.89(.67)               | 2.57(.66)                | 5.11***  |
|                | 학교생활 | 2.97(.57)               | 3.04(.52)               | -1.33    | 3.08(.58)               | 2.95(.49)                | 2.73**   |
|                | 전체   | 2.95(.46)               | 2.94(.44)               | .29      | 3.03(.46)               | 2.85(.43)                | 4.40***  |

\* $p < .05$ . \*\* $p < .01$ . \*\*\* $p < .001$ .

## 2.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의 관계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와 희망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기본심리욕구( $r=.66$ ,  $p<.001$ ) 및 희망( $r=.60$ ,  $p<.001$ )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적응은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유능성( $r=.60$ ,  $p<.001$ ), 희망의 하위요인인 주도적 사고( $r=.58$ ,  $p<.001$ )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은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유능성( $r=.58$ ,  $p<.001$ )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은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관계성( $r=.68$ ,  $p<.001$ )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학교교사에 대한 적응은 희망의 하위요인인 주도적 사고( $r=.44$ ,  $p<.001$ )와,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은 기본심리

욕구의 하위요인인 유능성( $r=.49, p<.001$ )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와 희망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r=.68, p<.001$ ). 특히 기본심리욕구 중 유능성은 희망의 하위요인 통로 사고( $r=.67, p<.001$ ), 주도적 사고( $r=.72, p<.001$ )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2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의 관계

( $N=454$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기본<br>심리<br>욕구 | 1. 자율성    | -      |        |        |        |        |        |        |        |        |        |        |
|                | 2. 유능성    | .48*** | -      |        |        |        |        |        |        |        |        |        |
|                | 3. 관계성    | .40*** | .57*** | -      |        |        |        |        |        |        |        |        |
|                | 4. 전체     | .80*** | .84*** | .82*** | -      |        |        |        |        |        |        |        |
| 희망             | 5. 통로 사고  | .35*** | .67*** | .44*** | .60*** | -      |        |        |        |        |        |        |
|                | 6. 주도적 사고 | .43*** | .72*** | .43*** | .65*** | .69*** | -      |        |        |        |        |        |
|                | 7. 전체     | .43*** | .76*** | .48*** | .68*** | .91*** | .93*** | -      |        |        |        |        |
| 학교<br>적응       | 8. 학교공부   | .35*** | .58*** | .37*** | .53*** | .51*** | .54*** | .57*** | -      |        |        |        |
|                | 9. 학교친구   | .43*** | .42*** | .68*** | .61*** | .34*** | .36*** | .38*** | .43*** | -      |        |        |
|                | 10. 학교교사  | .24*** | .39*** | .34*** | .40*** | .37*** | .44*** | .44*** | .50*** | .32*** | -      |        |
|                | 11. 학교생활  | .35*** | .49*** | .43*** | .51*** | .41*** | .44*** | .47*** | .53*** | .46*** | .53*** | -      |
|                | 12. 전체    | .44*** | .60*** | .58*** | .66*** | .53*** | .58*** | .60*** | .80*** | .69*** | .79*** | .81*** |

\* $p<.05$ . \*\* $p<.01$ . \*\*\* $p<.001$ .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남녀 청소년 모두 학교적응은 기본심리욕구(남  $r=.61, p<.001$ ; 여  $r=.69, p<.001$ ) 및 희망(남  $r=.62, p<.001$ ; 여  $r=.59, p<.001$ )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기본심리욕구와 희망 역시 높은 정적 상관(남  $r=.62, p<.001$ ; 여  $r=.73, p<.001$ )이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모두 학교적응은 기본심리욕구(중  $r=.68, p<.001$ ; 고  $r=.60, p<.001$ ) 및 희망(중  $r=.64, p<.001$ ; 고  $r=.54, p<.001$ )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기본심리욕구와 희망 역시 높은 정적 상관(중  $r=.68, p<.001$ ; 고  $r=.67,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적응의 관계에 대한 희망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적응의 관계에 대해 희망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모델에 근거하여 세 단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독립변인인 기본심리욕구가 매개변인인 희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기본심리욕구가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기본심리욕구와 매개변인인 희망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회귀식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세 단계의 절차를 걸쳐 기본심리욕구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단계의 모형 1에서는 성별, 학교급, 부모교육수준을 가변수화하여(성별: 남 0, 여 1; 학교급: 중학생 0, 고등학생 1; 부모교육수준: 고졸이하 0, 대졸이상 1) 먼저 투입해 성별, 학교급과 부모교육수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먼저, 독립변인인 기본심리욕구가 매개변인인 희망에 미치는 영향력( $\beta=.68, p<.001$ )과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beta=.64,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기본심리욕구와 희망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기본심리욕구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어( $\beta=.64, p<.001 \rightarrow \beta=.43, p<.001$ ) 청소년의 희망은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6.11, p<.001$ ).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희망을 통해 부분적으로 매개됨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희망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희망의 매개효과 (N=454)

| 검증 단계 | 모형 1          |         |           |            | 모형 2   |         |           |          |
|-------|---------------|---------|-----------|------------|--------|---------|-----------|----------|
|       | B             | $\beta$ | adj $R^2$ | F          | B      | $\beta$ | adj $R^2$ | F        |
| 1     | 성별 → 희망       | -.1655  | -.07***   |            | -.28** | -.12*** |           |          |
|       | 학교급 → 희망      | -.1155  | -.16***   |            | -.02** | -.02*** |           |          |
|       | 부모교육수준 → 희망   | .2455   | .10***    | .03 3.84** | .20**  | .08***  | .47       | 72.24*** |
|       | 모교교육수준 → 희망   | .1355   | .06***    |            | .11**  | .05***  |           |          |
|       | 기본심리욕구 → 희망   |         |           |            | 1.07** | .68***  |           |          |
| 2     | 성별 → 학교적응     | .0355   | .03***    |            | .04**  | -.02*** |           |          |
|       | 학교급 → 학교적응    | -.0655  | -.20***   |            | .01**  | -.07*** |           |          |
|       | 부모교육수준 → 학교적응 | .0655   | .06***    | .03 3.89** | .05**  | .04***  | .42       | 58.39*** |
|       | 모교교육수준 → 학교적응 | .0155   | .02***    |            | .04**  | .01***  |           |          |
|       | 기본심리욕구 → 학교적응 |         |           |            | .03**  | .64***  |           |          |
| 3     | 성별 → 학교적응     | .0355   | .03***    |            | .02**  | .02***  |           |          |
|       | 학교급 → 학교적응    | -.0655  | -.20***   |            | -.02** | -.07*** |           |          |
|       | 부모교육수준 → 학교적응 | .0655   | .06***    | .03 3.89** | .01**  | .01***  | .47       | 59.61*** |
|       | 모교교육수준 → 학교적응 | .0155   | .02***    |            | -.01** | -.01*** |           |          |
|       | 기본심리욕구 → 학교적응 |         |           |            | .28**  | .43***  |           |          |
|       | 희망 → 학교적응     |         |           |            | .13**  | .31***  |           |          |

\* $p < .05$ . \*\* $p < .01$ . \*\*\* $p < .001$ .

이러한 결과를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별로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검증시 각 단계의 모형 1에서는 표 3과 같이 성별, 학교급과 부모교육수준을 가변수화하여 통제하였다. 첫째,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을 살펴보면, 기본심리욕구가 희망( $\beta=.68$ ,  $p<.001$ )과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beta=.51$ ,  $p<.001$ )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기본심리욕구와 희망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기본심리욕구가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어( $\beta=.51$ ,  $p<.001 \rightarrow \beta=.26$ ,  $p<.001$ ) 희망이 기본심리욕구와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과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bel(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6.24$ ,  $p<.001$ ). 즉,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는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희망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표 4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가 학교적응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희망의 매개효과

(N=454)

| 종속<br>변인 | 검증<br>단계 | 모형 2          |         |                     |              |     |                      |
|----------|----------|---------------|---------|---------------------|--------------|-----|----------------------|
|          |          | B             | $\beta$ | $R^2$               | $\Delta R^2$ | F   |                      |
| 학교<br>공부 | 1        | 기본심리욕구 → 희망   | 1.071   | .68 <sup>***</sup>  | .48          | .44 | 72.24 <sup>***</sup> |
|          | 2        | 기본심리욕구 → 학교공부 | .431    | .51 <sup>***</sup>  | .30          | .25 | 34.08 <sup>***</sup> |
|          | 3        | 기본심리욕구 → 학교공부 | .221    | .26 <sup>***</sup>  | .38          | .32 | 38.82 <sup>***</sup> |
|          |          | 희망 → 학교공부     | .201    | .37 <sup>***</sup>  |              |     |                      |
| 학교<br>친구 | 1        | 기본심리욕구 → 희망   | 1.071   | .68 <sup>***</sup>  | .48          | .44 | 72.24 <sup>***</sup> |
|          | 2        | 기본심리욕구 → 학교친구 | .491    | .62 <sup>***</sup>  | .39          | .37 | 49.92 <sup>***</sup> |
|          | 3        | 기본심리욕구 → 학교친구 | .511    | .64 <sup>***</sup>  | .39          | .37 | 41.56 <sup>***</sup> |
|          |          | 희망 → 학교친구     | -.011   | -.03 <sup>***</sup> |              |     |                      |
| 학교<br>교사 | 1        | 기본심리욕구 → 희망   | 1.071   | .68 <sup>***</sup>  | .48          | .44 | 72.24 <sup>***</sup> |
|          | 2        | 기본심리욕구 → 학교교사 | .391    | .39 <sup>***</sup>  | .20          | .15 | 19.53 <sup>***</sup> |
|          | 3        | 기본심리욕구 → 학교교사 | .181    | .18 <sup>***</sup>  | .25          | .20 | 21.92 <sup>***</sup> |
|          |          | 희망 → 학교교사     | .201    | .32 <sup>***</sup>  |              |     |                      |
| 학교<br>생활 | 1        | 기본심리욕구 → 희망   | 1.071   | .68 <sup>***</sup>  | .48          | .44 | 72.24 <sup>***</sup> |
|          | 2        | 기본심리욕구 → 학교생활 | .381    | .48 <sup>***</sup>  | .25          | .22 | 26.26 <sup>***</sup> |
|          | 3        | 기본심리욕구 → 학교생활 | .231    | .29 <sup>***</sup>  | .30          | .27 | 27.20 <sup>***</sup> |
|          |          | 희망 → 학교생활     | .151    | .29 <sup>***</sup>  |              |     |                      |

\* $p < .05$ . \*\* $p < .01$ . \*\*\* $p < .001$ .

둘째,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을 살펴보면, 기본심리욕구가 희망( $\beta = .68$ ,  $p < .001$ )과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beta = .62$ ,  $p < .001$ )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기본심리욕구와 희망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기본심리욕구가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히려 증가하여( $\beta = .62$ ,  $p < .001 \rightarrow \beta = .64$ ,  $p < .001$ ) 희망이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과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는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교사에 대한 적응을 살펴보면, 기본심리욕구가 희망( $\beta = .68$ ,  $p < .001$ )과 학교교사에 대한 적응( $\beta = .39$ ,  $p < .001$ )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기본심리욕구와 희망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기본심리욕구가 학교교사에 대한 적응에 미

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어( $\beta=.39, p<.001 \rightarrow \beta=.18, p<.01$ ) 희망이 기본심리욕구와 학교교사에 대한 적응과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bel(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4.81, p<.001$ ). 즉,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는 학교교사에 대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희망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살펴보면, 기본심리욕구가 희망( $\beta=.68, p<.001$ )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beta=.48, p<.001$ )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기본심리욕구와 희망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기본심리욕구가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어( $\beta=.48, p<.001 \rightarrow \beta=.29, p<.001$ ) 희망이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과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bel(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4.81, p<.001$ ). 즉,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는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희망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이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기본심리욕구와 희망은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희망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희망의 하위요인인 주도적 사고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교사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주도적 사고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Hyde & Durik, 2007)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보다 기본심리

욕구, 희망과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보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재량활동 등 다양한 교육제도 속에서 초등 교육을 받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과 관계성을 충족시키는 활동이며(김영순, 오영훈, 김미라, 2012), 교육과정 개편 시에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결정적인 동기에 기반을 둔 학습을 권장하도록 한다(심상보, 2010). 이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며, 이는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년이 진급함에 따라 욕구 충족 수준이 낮아지며(김아영, 2002; Furrer & Skinner, 2003), 외재적 동기가 높아지고 내재적 동기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김은영, 2007; Eccles, Lord & Buchanan, 1996; Otis, Frouzet & Pelletier, 2005)와도 일부 일치한다. 이는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고 이것이 내적 동기를 높일 것이라는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의 차이가 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중학생 집단 대비 고등학생 집단의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 수준의 감소는 학습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이 공부 자체에 대한 내재적 가치와 흥미를 잃어가는 교육현실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학교적응 수준이 낮다는 연구결과(구본용, 유제민, 2007)와도 일치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의 특성을 각각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은 신체적 성장도 다르지만 적응해야 하는 환경과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도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와 희망은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기본심리욕구가 잘 충족될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인간의 바람직한 발달과 긍정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어

야 한다는 Deci와 Ryan(2000)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며,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학교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 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희망과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사회적응이 서로 관련된다는 연구(김택호, 김재환, 2004)와 일치하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희망을 가진 사람은 목표를 이루어 나갈 때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며,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에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지한다(Snyder et al., 1997). 따라서 희망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새로운 학교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학교 적응 수준도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적응에 대한 희망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희망은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희망을 통해서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내적 동기인 희망 수준이 높아지고 이것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물입 및 학업 성취에서도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내적 동기가 발휘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Ryan & Deci, 2009)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심리욕구와 학교공부, 학교교사 및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과의 관계를 희망이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이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내적 동기가 발휘되어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이민희, 정태연, 2008),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면 직간접적으로 교사와의 친밀도가 향상되며(Kingery, Erdley & Marshall, 2011), 유능성과 관계성은 내적 동기를 통해서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김은주, 김민규, 2011) 기존 연구들을 일부 지지한다. 하지만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의 관계에서는 희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친구는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맺으며 친구와 상호 협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지적 동기인 희망보다는 기본심리욕구인 관계성의 욕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관계성 욕구 충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적 동기를 증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개인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Ryan, 2012; Ryan & Deci, 2002)와 유사하다.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는 교육 및 상담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내적 동기가 발현되고, 기본심리욕구 자체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도 주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험을 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 및 수업 참여도를 높인다는 연구(김종렬, 이은주, 2012; 서수균, 김윤희, 2013)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켜 내적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희망이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결과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어 나타나는 희망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의 충족과 더불어 학생들의 희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희망은 적응, 학업성취, 대인관계 능력 등 심리 발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한익, 2009). 희망의 중요성을 근거로 희망 이론을 학교현장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조한익, 2009; Gilman, Dooley & Florell, 2006; Snyder, 2000). 희망은 목표달성을 위한 유동적이고 효율적인 인지전략으로서 높은 수준의 희망은 학교에 잘 적응하게 도와준다(Walls & Little, 2005). 나아가 학생들의 희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학교적응을 넘어서 청소년의 전반적인 심리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앞서 희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희망을 높이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의 내면에서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서울·경기 지역의 청소년으로 제한하였고, 학교적응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다 다양한 범주의 연구대상을 포함 시킨다면 초·중·고 전반에 걸친 학교적응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및 희망과 학교적응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기본심리욕구와 희망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구성개념이지만, 학교적응의 경우 제 3자의 보고나 관찰과 같은 다각적 평가방식이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외에

도 교사 평가 혹은 행동 관찰을 함께 이용한다면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단일 응답자로 인한 공유변량의 효과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업 동기와 학업 성취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자기결정성 이론을 학교적응 분야로 확장해 적용하였고, 기본심리욕구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내적 동기로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 상담 및 교육적 개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 희망과 학교적응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를 밝히고, 자기결정성 이론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메커니즘을 살펴본 것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강승희 (2010). 중학생의 부·모애착, 우울,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1-29.
- 강유진, 문재우 (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5.
- 강이영 (2002). **상담과정 희망척도의 개발과 적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구분용, 유제민 (2007). 중·고등학생의 다차원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5(1), 67-76.
- 김명희, 하정희, 차경희 (2006). 중학생들의 학습동기, 다중지능, 학습양식과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4(3), 57-79.
- 김미숙, 이창식 (2012). 시설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13(2), 636-641.
- 김아영 (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16(4), 169-187.
- 김아영 (2010). 자기결정성이론과 현장 적용 연구. **교육심리연구**, 24(3), 583-609.
- 김영순, 오영훈, 김미라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0(2), 285-304.
- 김영춘, 정민숙 (2012).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3, 51-70.
- 김은영 (2007). 남녀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79-1100.
- 김은주, 김민규 (2011). 청소년들의 유능성과 관계성 및 내재동기가 공부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교육심리연구**, 25(2), 345-365.
- 김종렬, 이은주 (2012). 초, 중학교급별 교실목표구조 기본심리욕구, 수업참여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26(3), 817-835.
- 김종범 (2009).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6(2), 25-48.

- 김택호 (2004).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택호, 김재환 (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65-490.
- 남영옥 (2010).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219-243.
-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변인의 탐색적 고찰. **교육발전논총**, 23(1), 153-167.
- 박병선, 배성우 (2012). 대인관계와 학교성적이 학교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학교급별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4(3), 215-238.
- 백희숙 (2012). **고등학생의 기본심리욕구와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 학교적응 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2012).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0(8), 327-333.
- 서수균, 김윤희 (2013). 분노대처행동과 주관적안녕감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충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2), 367-381.
- 송운용, 박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8(3), 107-129.
- 심상보 (2010). 중등교육과정의 현실적 쟁점과 개선방향: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18(1), 3-42.
- 안도희, 최혜림 (2012). 고등학생의 학업 동기 및 사회적 지지와 학업 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육문제연구**, 30(2), 145-164.
- 안성희 (2003). **대학생의 성취목표 지향성이 내적 동기 및 운동수행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상 (2011).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중단적 변화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18(12), 131-155.
- 이규미, 김명식 (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민희, 정태연 (2008). 자기결정이론을 토대로 한 학습동기 경로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77-99.
- 이회란 (2013). **부모의 자율성지지 및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자녀의 자기조절양식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선, 권영애 (2012).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 주도적 학습과의 관계: 자기결정성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50(8), 125-135.
- 장경문 (2011).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가 남녀 초등학생의 자존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2), 243-261.
- 장수지 (2010). 긍정적-부정적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의 관계: 사회적지지 제공 및 부부관계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1-23.
- 전성희, 신미, 유미숙 (2011). 청소년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청소년학연구**, 18(1), 275-296.
- 정은이 (2011). 개별성-관계성 및 대인관계 유능성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17(2), 97-120.
- 조한익 (2009).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 **초등교육연구**, 22(3), 65-87.
- 좌현숙 (2012). 청소년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9(6), 1-28.
- 최유희, 이회경, 이동귀 (2008). Snyder의 희망척도 한국 번역판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2), 1-16.
- 한소영, 신희천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39-464.
- Areepattamannil, S., Freeman, J. G., & Klinger, D. A. (2011).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Indian adolescents in Canada and India. *Social Psychology Education*, 14, 427-439.
- Baard, P. P., Deci, E. L., & Ryan, R. M. (2004). Intrinsic need satisfaction: A motivational basis of performance and well-being in two work setting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 2045-2068.

- Barnum, D. D., Snyder, C. R., Rapoff, M. A., Mani, M. M., & Thompson, R. (1998). Hope and social support i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who have survived burn injuries and their matched controls. *Children's Health Care, 27*, 15-3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hang, E. C. (1998). Hope, problem-solving ability, and coping in a college student population: Some implications for the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7), 953-962.
- Curry, L., & Snyder, C. R. (2000). Hope takes the field: Mind matters in athletic performances. In C. R. Snyder (Ed.),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 (pp.243-260). San Diego, CA: Academic.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Deci, E. L., & Ryan, R. M. (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gration in personality. In R. Dienstbier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erspectives on motivation* (pp.237-28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ci, E. L., & Ryan, R. M. (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Eccles, J. S., Lord, S., & Buchanan, C. M. (1996). School transition in early adolescence: What are we doing to our young people?. In J. A. Graber, & J. Brooks-Gunn (Eds.), *Transitions through adolescence: Interpersonal domains and context* (pp.251-284). New York: Wiley.
- Erath, S. A., Flanagan, K. S., & Bierman, K. L. (2008). Early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Associations with friendship and peer victimization. *Social*

- Development*, 17(4), 853-870.
- Furrer, C., & Skinner, E. (2003). Sense of relatedness as a factor in children's academic engage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148-162.
- Gilman, R., Dooley, J., & Florell, D. (2006). Relative levels of hop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academic and psychological indicato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2), 166-178.
- Hyde, J. S., & Durik, A. M. (2007). Gender, competence, and motivation. In A. J. Elliot, & C. S. Dweck (Eds.), *Handbook of competence and motivation* (pp.375-391).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ingery, J. N., Erdley, C. A., & Marshall, K. C. (2011).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as predictors of early adolescents' adjustment across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7(3), 215-243.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3r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Leveresen, I., Danielsen, A. G., Birkeland, M. S., & Samdal, O. (2012).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in leisure activities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1, 1588-1599.
- Nota, L., Soresi, S., Ferrari, L., & Wehmeyer, M. L. (2011). A multivariate analysis of the self-determina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Happiness Study*, 12, 245-266.
- Onwuegbuzie, A. J., & Daley, C. E. (1999). Relation of hope to self-percept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88(2), 535-540.
- Otis, N., Frouzet, F. M. E., & Pelletier, L. G. (2005). Latent motivational change in an academic setting: A 3-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2), 170-183.
- Padilla-Walker, L. M., Hardy, S. A., & Christensen, K. J. (2011). Adolescent hope as a mediator between parent-child connectedness and adolescent outcome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1(6), 853-879.
- Ryan, A. M. (2012). Peer relationships and adjustment at school: An introduction.

- In A. M. Ryan,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and adjustment at school* (pp.1-10). Charlotte, NC: Information age publishing.
-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54-67.
- Ryan, R. M., & Deci, E. L. (2002). An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3-33).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9). Promoting self-determined school engagement: Motivation, learning, and well-being. In K. R. Wentzel, & A. Wigfield (Eds.), *Handbook of motivation at school* (pp.171-196). New York, NY: Routledge.
- Ryzin, M. J. (2011). Protective factors at school: Reciprocal effects among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school environment, engagement in learning, and hope.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40(12), 1568-1580.
- Ryzin, M. J., Gravely, A. A., & Roseth, C. J. (2009). Autonomy, belongingness, and engagement in school as contributors to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 1-12.
- Shogren, K. A., Lopez, S. J., Wehmeyer, M. L., Little, T. D., & Pressgrove, C. L. (2006). The role of positive psychology constructs in predicting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cognitive disabilities: An exploratory study.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1), 37-52.
- Snyder, C. R. (2000).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Snyder, C. R. (2002). Hope theory: Rainbows of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 249-276.
- Snyder, C. R. et al.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585.

- Snyder, C. R. et al. (1997).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hildren's hope scale.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2(3), 399-421.
- Snyder, C. R., LaPointe, A. B., Crowson, J. J., & Early, S. (1998). Preferences of high- and low-hope people for self-referential input. *Cognition and Emotion*, 12(6), 807-823.
- Snyder, C. R., & Lopez, S. J. (2005).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Vansteenkiste, M., Ryan, R. M., & Deci, E. L. (2009).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explanatory role of psychological needs in human well being. In L. Bruni, F. Comim, & M. Pugno (Eds.), *Capabilities and happiness* (pp.187-223).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Vieno, A., Santinello, M., Galbiati, E., & Mirandola, M. (2004) School setting, school climate and well-being in early adolescence: A comprehensive model. *Europ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 219-238.
- Walls, T. A., & Little, T. D. (2005). Relations among personal agency,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1), 23-31.
- Wandeler, C. A., & Bundick, M. J. (2011). Hope and self-determination of young adults in the workplac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6(5), 341-354.
- Weinstein, N., & Ryan, R. M. (2011).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to understanding stress incursion and responses. *Stress and Health*, 27, 4-17.

## ABSTRACT

### The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hopes on the school adjustment levels of adolescents

Lim, Jungha\* · Kim, Kyungmin\*\* ·  
Song, Jieun\*\* · Na, Yunkyeong\*\* · Tan, Mei Xi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hopes on the school adjustment levels of adolescents. The participants were made up of 454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Seoul and Gyeonggi area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iddle school students reported greater basic psychological needs, hopes and school adjustment levels than high school students. Second, the school adjustment levels of these adolescent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hopes. Third, hope was found to play a partially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the levels of school adjustment exhibited by the adolescents in this study.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school adjustment levels of adolescents could be improved by the fulfillmen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hopes.

Key Words : basic psychological needs, hopes, school adjustment levels, adolescent

투고일 : 2013. 9. 9, 심사일 : 2013. 11. 18, 심사완료일 : 2013. 11. 28

---

\*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